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한우 도매 가격의 급락과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 700여 한우 농가는 물론 전국적인 한우농가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세 의원은 "정부는 한우 농가의 깊은 한숨을 외면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 자금지원과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농촌유학 활성화 '남부안 캠프스쿨' 운영

부안군은 지난 31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남부안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인 남부안 캠프스쿨(이하 캠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안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 필요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해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공모에 선정돼 남부안소생활권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이번 캠프스쿨은 도시 학생들에게 남부안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서울·경기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18명의 가족이 참여하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 교육관에서 부안 농악을 주제로 쉼터, 장구, 북, 징 등의 농악기로 어우르는 전수교육과 연수활동으로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정읍시, 3년간 180억 투입...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양성, 인성교육도시' 조성

정읍시가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는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도내 10개 대학, 18개 유관기관 및 기업과 6개 시군(전주·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과 협업체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앞으로 3년간 180억원(국비 90억 시비 90억)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양성, 인성교육도시 정읍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계획은 역사문화자원(동화농민

혁명 무성사원 등)을 활용 인성교육 강화 농생명·바이오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책임 돌봄시스템 강화 초·중·고 교육 경쟁력 제고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교육모델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구축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 7개 농협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모금 캠페인을 통해 총 1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

정읍지역 농협, 고향사랑기부 앞장

정읍시, 관내 7개 농협 자발적 모금 캠페인... 기탁 누계 2억원 달성

정읍시의 7개 농협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모금 캠페인을 통해 총 1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 이에 따라 정읍 농협은 올해 2월 고창군 농·축협과의 교차기부 4000만원, 6월 정읍농협 임직원 응원 기부 6000만원 등 총 기탁 누계 2억원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농협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결과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향한 관내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은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30일 시청에서는 이재연 N농협은행 정읍시지부장을 비롯한 각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학수 시장은 "조합장들과 임직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이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협의 협력 덕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내주시신 성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관내 농협은 한우(정읍농협, 샘골농협), 지황제품(철보농협), 고춧가루(신태인농협), 토마토(원예농협) 등 높은 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체 답례품 제공 규모의 27%를 차지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4개 사업 18억원 확보

지역현안 해결 · 재난위험시설 정비... 주민 편의 증대 · 안전 확보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갑작스런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9억원) △아산면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2억원)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구축사업(4억원) △후포배수갑문 수동개폐시설 설치사업(3억원)이다. '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은 공음면 선동리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756.4㎡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 발효식품의 안정적인 생산 및 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내 기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 '아산면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은 다양한 주민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노약자들이 해당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구축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전동보

장구에 스마트모빌리티 단말기를 설치하고 고창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넘어짐 등 발생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후포배수갑문 수동개폐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의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폭염 대비 경로당 현장 행정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30일 여름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 대비 경로당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현장 행정에서 경로당의 냉방 시설과 환기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부안읍 소재의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입석테이블·의자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안군은 최근 경로당 입석문화 조

성을 위해 관내 경로당 321개소에 입석테이블 및 의자 1세트를 지원해 설치했다. 권익현 군수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나누며 의견을 청취하고 입석테이블과 의자가 경로당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소감을 들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주민은 "이전에는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것이 불편했는데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돼 훨씬 편리해졌다"며 "식사할 때도 쾌적해졌고 어르신들 간의 소통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권익현 군수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무더위잡터 경로당에서 시원한 여름철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정읍시, 평생학습도시 2주기 평가 '재지정 확정'

정읍시는 교육부 주관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2주기 평가기간 동안 추진체계, 사업 운영, 사업성과 등 3개 영역과 10개 평가분야, 20개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진행됐다. 시는 2021년 1주기 재지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2023년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기자

또한, 성과지표 개발과 순환적 성과관리 모델 구축, 읍면동 평생학습조례 제정, 근거리 학습권 보장 등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노력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과의 협력 확대, 강사 및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등 사업 운영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고, 시민중심의 으뜸 정읍에 필요한 평생학습을 더욱 활성화해 교육이 중심돼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